

민간공원 특례사업 주민 반발에 발목 잡히나

“보상가격 부당” 백지화 요구 광주시 10월까지 협약 체결 토지 감정평가 후 최종 결정

광주시가 오는 2020년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민 반발에 부딪혀 흔들리고 있다. 토지 소유자들은 보상가격에 반발하며 사업 백지화와 공원 부지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8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광주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건설사만 배를 불리는 비리와 특혜로 물든 사업”이라며 철회를 주장했다.

비대위는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토지주를 말살하고 건설사에 특혜를 주고 있다”며 “공원 부지로 묶여 45년 동안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한 것도 억울한 데 개인재산권을 강제로 박탈당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은 광주지검에서 수사 중인 말도 안 되는 비리 사업이다”며 “당장 비리 사업을 중단하고 광주시가 공원 부지 전체를 인수해 자연 그대로 존속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잇따르면서 자칫 내년 7월 시행되는 공원일몰제 대비에 차질이 우려된다. 광주시역 일몰제 대상 공원은 모두 25곳이며 이 중 9개 공원은 특례사업으로 개발한다.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대상지인 중앙·중외공원 토지 소유주들이 18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토지 강제수용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김태규 기자

특례사업 공원 9개 중 1단계 4개(수광·마복·봉산·송암) 공원은 현재 공원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2단계 5개(중앙·중외·일곡·운암산·신용) 공원은 이제야 타당성 검토 협상과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등을 진행 중인 단계여서 10월까지 시행자 협약을 맺기도 빠듯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공원일몰제 시한에 맞추기 위해 사업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제안서 수용 여부를 통보하고, 수정된 제안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협약 체결, 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공원일몰제 시한인 2020년 6월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오는 10월 사업 시행자와 최종 협약 체결이 이뤄지면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 보상가를 산정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사업은 주어진 시간 자체가 없으므로 흔들림 없이 간다는 게 확고한 원칙이다”며 “공원일몰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 조항에 토지 수용은 사업 시행자가 하게 돼 있어 시가 토지 보상을 할 수 없다”며 “토지 등이 공평하게 평가받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남 관광지 입장료 ‘천차만별’

순천만생태공원 8천원 ‘최고’ ...순천 휴양림 1천원

전남지역 주요 관광지 및 여행명소의 입장료 차이가 최고 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등록된 전남지역 주요 관광지 중 자치단체가 운영중인 33곳의 입장료를 분석한 결과, 성인 기준으로 평균 입장료는 3,100원에 달했다.

관광지별로는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이 성인

8,000원, 청소년 6,000원, 어린이 4,000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저렴한 곳은 순천 자연휴양림으로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이다. 성인은 8배, 청소년은 10배, 어린이는 13배 차이다.

자연생태공원에 이어 보성 울포 해수욕장센터가 7,000원(성인 기준)으로 뒤를 이었고 곡성 섬

진강기차마을과 섬진강 도깨비마을, 해남 땅길 모노레일, 함평 엑스포공원과 곤충생태관, 자연생태공원이 각각 5,000원이다.

성인 1인당 4,000원을 받는 곳은 순천 낙안읍성과 무안 황토갯벌랜드, 화산 백련지 등이고, 목포 어린이비대과학관을 비롯해 여수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장흥 편백숲 우드랜드, 신안 천사섬 분재공원 등은 3,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

2,000원을 받는 곳은 담양 메타세쿼이아길과 나주 영상테마파크, 구례 양생화 테마공원 등 모두 11곳이고, 1,000원을 징수하는 곳은 순천 자연휴양림과 광양 백운산 자연휴양림, 영암 성기동 국민관광지, 장성 방장산 자연휴양림, 국립 장성숲체

험원 등 6곳에 달한다.

절반이 넘는 17곳에서는 청소년에게도 1인당 2,000원 이상의 입장료를 받고 있고, 취학 전 어린이에게도 2곳은 5,000원, 또 다른 2곳은 4,000~4,500원, 땅길 모노레일 등 7곳은 2,000원 이상을 징수하고 있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단순한 자연경관을 제공하는 관광지, 예를 들면 자연휴양림 등은 입장료를 상징적으로 1,000원만 받는 등 저렴한 편이고, 체험시설이나 전시시설 등을 갖췄거나 전국적으로 이름난 여행 명소는 최소한 2,000원 이상, 많게는 4,000~5,000원 받는 곳이 적잖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focus “광주형일자리 복지체제 개발해야” ▶2면 전남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 ▶3면 사이버 불법도박 폐해 심각 ▶7면

설렘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도숲정자⇒김삿갓동산⇒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 ⇒화순읍. 예약: 설렘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usun.go.kr. 현지답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